

북촌지역 비주거용 도시형 한옥의 현대적 사용실태

김도연(경희대학교 강사) · 오혜경(경희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북촌지역에 옛것인 한옥구조에 새것인 현대인들의 생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여 비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지 그 사용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지역은 경복궁과 창덕궁 율곡로와 삼청공원으로 둘러싸인 가회동, 삼청동 일대의 역사문화미관지역인 북촌으로 한정하여 2005년 9월 12일부터 2005년 10월 10일까지 한달간 실시하였다. 조사원이 지번약도와 2001년 항공도를 가지고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옥의 위치와 상태, 용도를 표시하고 외부입면은 사진을 촬영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옥은 159동으로 2000년도 조사에서 52동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비주거용한옥은 한 지번에 2개 이상의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총 비주거용 사용 실태수는 200사례로 나타났다.

둘째, 비주거용 한옥의 사용용도는 소규모 판매업 58사례(29.0%), 식음료공간 69사례(34.5%), 생활지원시설 7사례(3.5%), 문화시설 38사례(19.0), 기타 28사례(14.0%)로 나타났다. 도로변을 따라서는 주로 소규모판매업이 위치하는데 이는 북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업체로 한옥의 일부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요식업의 경우는 면적인 근집형태를 보이며, 한옥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레스토랑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북촌사업의 일환으로 한옥을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북촌지역의 문화적 특성상 디자인 사무실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셋째, 주거용 한옥을 비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131사례가 기존의 한옥을 훼손하여 한옥의 변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69사례의 한옥만이 비주거용 용도에 맞게 새로이 재현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현된 경우 방화장 형식이 59사례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한옥의 현대적으로 재현한 경우 10사례로 나타났다. 이는 한옥수선기준에 부합되어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형된 경우는 도로변 전면 개방형이 40사례(19%), 외관구성요소의 변형 29사례(15%), 처마증축형 19사례(10%), 마당증축형 14사례(7%), 전면 현대적 개량 12사례(6%)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옥의 변형이 심각한 비주거용 한옥의 용도는 소규모판매점이나 식음료공간이다. 문화시설이나 기타 사무실의 경우 도시한옥을 전통적으로 재현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소규모판매점은 한옥의 입지에 상관없이 도로쪽으로 개방적으로 처리하거나 마당을 증축하여 판매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한옥의 훼손이 심각하며, 식음료공간은 외부구성요소를 관리하기 편리한 타일이나 벽돌, 금속 등으로 개장하여 사용하는(20사례)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문화시설은 대부분 한옥수선지원금을 받아 방화장 형식(31사례)으로 꾸며져 있고, 몇몇 갤러리&카페 시설은 프로그램에 맞게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5사례)하여 사용하고 있다.